문화

메타버스 기업 ㈜메타랩, 안창홍 작가와 특별전시회 진행

기자

입력: 2022-03-29 09:00:02

사진출처: 메타랩/ 사진설명: 안창홍 작가의 '유령패션' '메타버스 전시'

인공지능 기반의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메타랩에서 안창홍 작가의 '유령패션' 신작 중 선별된 몇 작품을 메타버스를 통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를 진행한 안창홍 작가는 지난 50 여 년간 작품 활동을 이어나간 거장으로 시대의 유행과 제도에 편승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이나 매체를 실험해 왔다.

특히 자신의 고유한 회화 세계를 구축하는 등의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안창홍 작가는 이번에 진행하게 된 메타버스 특별전시회를 통해 세계 미술 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하는 메타버스 특별전시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디지털 펜화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등 미술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메타랩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시는 안창홍 작가의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통하여 예술산업의 미래가 될 메타아트를 창조한다'는 메타랩의 철학과 비전에 공감하여 탄생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메타버스 전문기업 메타랩은 인공지능, 메타버스가 결합되는 글로벌 메타버스 공간 플랫폼 구축과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모토로 삼고 있으며, 온라인 가상공간 플랫폼 자체개발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쉽게 접하고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창홍 작가의 디지털 펜화 중 선별된 7개의 작품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관람 가능하다.

[최은화 매경비즈 연구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